

‘첫 승’ 올리, ‘2승’도 “해냈다”...KIA, 4연패 탈출



5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와의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 역투를 선보인 KIA 선발투수 올라가 마운드를 내려오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5일 NC戰 7이닝 5K ‘완벽投’

2경기 연속 무실점 ‘다승 공동 선두’...정해영 첫 세이브 김호령 멀티 히트...돋보인 리드오프 박재현 썩기 득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연패 사슬을 끊어냈다. KIA는 5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홈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했다. 4연패에서 벗어나며 시즌 2승째를 쟁겼다. 다만 세 시리즈 연속 루정시리즈로 공동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날도 선발 올리의 호투가 돋보였다. 올리는 7이닝 3피안타 5탈삼진 무실점으로 시즌 2승째를 수확했다.

지난달 31일 LG전에 이어 2경기 연속 무실점이자 퀄리티스타트(QS). 다승 부문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최고 150km를 넘나드는 패스트볼에 슬라이더와 커브를 섞어 상대 타선을 묶었다. 9구 중 6구(65%)를 스트라이크로 채우며 공격적인 투구를 이어갔다.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완전히 틀어쥐었다. 3회까지 단 한 명의 주자도 내보내지 않았고, 4회 2사 후 첫 안타를 허용했지만 추가 출루 없이 이닝을 정리했다.

5회를 삼자범퇴로 끝낸 뒤 6회, 첫 고비를 맞았다.

안타와 2루타를 허용하며 2사 2루 위기에 몰렸지만 땅볼로 실점을 막아냈다.

7회에 땅볼과 삼진, 낮아웃, 좌익수 플라이로 이닝을 마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볼펜도 흔들림이 없었다.

두 번째로 마운드에 오른 정해영이 홀드를 추가했고, 김범수는 이적 후 첫 홀드를 기록했다.

마무리 정해영은 9회를 깔끔하게 막으며 시즌 첫 세이브를 올렸다.

타선은 7안타로 필요한 만큼 점수를 뽑았다. 김호령이 멀티히트를 기록했고, 카스트로는 3타수 1안타 1타점으로 중심 역할을 했다.

리드오프 박재현은 8회말 2루타로 출루해 승부에 썩기를 박는 득점을 터렸다.

KIA는 2회말 카스트로의 안타와 한준수의 볼넷, 김호령의 안타로 만든 1사 만루에서 정현창의 땅볼로 선취점을 따냈다.

4회엔 한준수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더 도망간 뒤 8회에는 카스트로의 희생플라이로 승기를 잡았다.

3-0으로 앞선 KIA는 9회말 마무리 정해영이 3개의 아웃카운트를 땅볼로 처리하며 승리를 지켜냈다.

한 주간 2승 4패를 기록한 KIA는 7일 홈에서 삼성과 주중 3연전을 치른다. 이어 대전에서 한화와의 주말 원정 3연전을 갖는다. /주홍철 기자

광주은행 오예진, AG行 티켓 예약

양궁 국가대표 최종 1차 평가전 1위 5위 안산, 2차 선발전 서반전 노린다

올해 광주은행 텐텐양궁단에 입단한 오예진이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티켓을 예약했다.

오예진은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전북국재양궁장에서 열린 2026 리커브 국가대표 최종 1차 평가전에서 배점 35점을 기록, 리커브 여자부 1위에 올랐다.

강채영(현대모비스)과 종합 배점 35점으로 동점을 이뤘지만 평균기록에서 앞섰다. 오예진의 평균 기록은 28.04933, 강채영은 28.03367이다.

오예진은 3차 선발전 역배점을 안고 1-5회전으로 치러진 이번 선발전에서 4회전까지 강채영에게 1점 뒤졌으나 마지막 5회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역전했다.

이윤지(현대모비스)가 배점 33점으로 3위에 올랐고, 지난 국가대표 3차 선발전에서 1위를 기록했던 장민희(인천시청)는 배점 28.5점으로 4위에 자리했다.

3회전에서 난조를 보이며 잠시 흔들렸던 안산(광주은행 텐텐양궁단)이 4-5회전에서 선전하며 배점 23.5점으로 5위, 김서하(순천대)가 배점 16.5점으로 6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전은 1-5위간 점수차가 크지 않아 최종 2차 평가전 결과에 따라 순위 변동 가능성이



지난 3일 끝난 2026 리커브 국가대표 최종 1차 평가전에서 여자부 1위를 차지한 광주은행 텐텐양궁단 오예진. <대한양궁협회 제공>

이 큰 상황이다. 5위 안산에게도 반전의 기회는 충분하다. 리커브 남자부에서는 김제덕(예천군청)이 배점 37점으로 1위에 오르며 선두를 차지했다. 김우진이 배점 35점으로 2위를 기록했고, 김선우(코오롱엑스텐보이즈)가 배점 27.5점으로 3위에 자리했다.

최종 엔트리 선발은 역배점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1차 평가전 순위를 기준으로 1위부터 8

위까지 선수들에게 1위 8점, 8위 1점의 역배점이 부여되며 해당 점수를 안고 2차 평가전에 나선다.

오는 13-17일까지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리는 2차 평가전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순위를 가리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올해 국제무대에 출전할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는 17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



지난 5일 열린 '제1회 광주시연맹회장배 생활체육 근대5종대회' 육상 경기 모습. <광주시체육회 제공>

근대5종 '생활속 스포츠 변신'

'제1회 광주시연맹회장배 생활체육 근대5종대회' 시민 참여형 축제로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린 생활체육 근대5종 대회가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동호인과 시민 등 약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5일 무등수영장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제1회 광주시연맹회장배 생활체육 근대5종 대회'는 그동안 엘리트 선수 중심으로 운영돼 온 근대5종 종목을 생활체육 영역으로 확장한 광주 체육 최초의 사례로, 종목 저변 확대와 시민 참여 기반 조성에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데 큰 주목을 받았다.

근대5종은 수영, 펜싱, 장애물, 사격, 육상 등 5개 종목으로 구성된 복합 스포츠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생활체육 여건을 고려해 수영, 육상, 레이저런(사격+육상 복합) 등 3개 종

목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각 종목에서 열정적인 경기를 펼치며 근대5종의 색다른 매력을 몸소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회 전반에 걸쳐 안전하고 질서 있는 운영이 이뤄졌으며, 참가자와 관람객이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시민참여형 스포츠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이번 대회는 근대5종의 저변 확대는 물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 발전 가능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 발굴과 지원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광주 박성현, K리그 최연소 출전

지난 4일 강원戰 교체 출전...팀은 슈팅 '0', 0대3 완패

프로축구 광주FC 준프로 선수인 박성현(16)이 K리그 최연소 출전 기록을 새롭게 썼다.

박성현은 지난 4일 강원하이원아레나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6라운드 강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36분 교체 출전하며 16세 8개월 17일의 나이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이는 구단 최연소 출전 기록이자, 2012년 승강제 도입 이후 K리그1과 K리그2를 통틀어 최연소 출전 기록이다.

중전 기록은 올해 안주원(서울랜드FC)이 세운 16세 11개월 7일이며, K리그1 기준 최연소 기록은 2024년 구단 최초 준프로 선수인 김윤호가 기록한 17세 4개월 17일이다. K리그 통산 최연소 출전 기록은 2002년 한동원(당시 안양LG)의 16세 25일이다.

박성현은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감각적인 볼

터치와 과감한 드리블 능력을 갖춘 유망주다. 좁은 공간에서도 탈압박과 전진이 가능한 플레이를 통해 창의적인 공격 전개를 이끌 수 있는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올 시즌 동계 훈련부터 프로 선수단과 함께 꾸준히 훈련을 소화하며 기량을 인정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만 16세의 어린 나이에 준프로 계약을 체결했다.

광주는 박성현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향후 팀 공격 전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자원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광주는 단 한 차례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경기 끝에 강원FC에 0대3으로 완패했다.

광주는 볼 점유율 57%를 기록했지만 끝내 단 한 개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는 극심한 공격력 부재를 드러냈다. /박희중 기자



광주FC 박성현이 지난 4일 열린 강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그라운드를 밟으며 2012년 승강제 도입 이후 K리그1과 K리그2 포함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우고 있다. <광주FC 제공>

이로써 광주는 시즌 성적 1승 3무 2패를 기록하며 최근 4경기 연속 무승(2무 2패)에 빠졌고 2연패의 부진을 이어갔다. /박희중 기자

고지원, KLPGA 국내 개막전 챔프

더시에나 오픈 우승 '통산 3승'

고지원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6시즌 국내 개막전 챔피언이 됐다.

고지원은 5일 경기도 여주시 더시에나 벨루토 컨트리클럽(파72·6천588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더시에나 오픈(총상금 10억원)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보기 3개로 1오버파 73타를 쳤다.

최종 합계 13언더파 275타를 기록한 고지원은 지난해 신인왕인 단독 2위 서교림(12언더파 276타)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지난해 8월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11월 에스오일 챔피언십에서 2승을 거둔 고지원은 투어 3승을 달성했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1억8천만 원이다.

3라운드까지 2위에 2타 앞선 단독 선두였던 고지원은 1~4라운드 내내 1위를 놓치지 않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완성했다. /연합뉴스



고지원이 5일 열린 KLPGA 더시에나 오픈 2026에서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KLPGA 제공>

2위 서교림에게 1타 차로 앞서던 고지원은 16번 홀(파5)에서 약 3m 버디 퍼트를 넣고 2타 차로 달아났다가 17번 홀(파3) 티샷이 벙커에 빠지면서 다시 1타 차로 쫓겼다.

그러나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서교림의 약 5m 버디 퍼트가 빗나가면서 고지원의 1타 차 우승이 확정됐다. /연합뉴스